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3월 30일 · 제350호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

Contents

| 글로벌 물류이슈 |

1. 전자상거래, 물류시장의 판도를 바꾸다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COSCO-PSA, 싱가포르 파시르판장 터미널 공동 투자 협정 체결
2. 일부 선주들,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실수라고 인정
3. 중국 우루무치경제기술개발구, 뤼스부르크항과 협력 MOU 체결
4. 물류기술 관련 스타트업 투자 · 육성프로그램 확대

| 물류시장동향 |

1. 인치케이프해운, 멕시코 서비스 강화
2. 2015년 불가-돈 운하 화물 운송량 26.6% 감소





글로벌 물류이슈

전자상거래, 물류시장의 판도를 바꾼다

- 전자상거래시장의 발전으로 물류기업들은 보다 큰 리스크와 복잡성(complexity)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서비스 품질과 비용 사이의 균형 유지를 위한 최적 배송네트워크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
 - Transport Intelligence(TI)의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 소매의 증가에 힘입어 2015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규모는 1,813억 유로로 2014년 대비 20.9% 증가했으며, 2015년~2019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시장은 연평균 17.8%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지역별로 아태지역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49.0%)을 차지했으며, 북미와 유럽은 각각 22.8%와 21.3%를 차지함
 - 아태지역에서는 중국이, 북미에서는 미국, 유럽에서는 독일과 영국이 지역별 전자상거래 물류시장의 성장을 이끔
- 그동안 전자상거래 배송시장에서 강점을 보여 온 특송기업들은 최근들어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됨
 - 무선박운송인(NVOCC) 면허를 취득한 세계적인 온라인 소매기업 아마존의 사례가 대표적임
 - SJ 컨설팅 그룹의 사티쉬 진델(Satish Joindal) 회장은 비록 아마존이 직접 선박을 운영하지 않고 해상운송을 위탁할 예정이지만, 아마존은 NVOCC 면허 취득으로 연간 3,500억 달러 규모의 해운사업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힘

SJ 컨설팅 사티쉬 진델 회장



자료 : www.JOC.com

TI 데이비드 벅비 경제 전문가



자료 : www.aircargonews.com



- T1의 데이비드 벅비(David Buckby) 경제 전문가는 전자상거래 물류시장에서 높은 명성을 얻는데 성공한 기업은 향후 상당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T1가 발간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 2016(Global E-Commerce Logistics 2016)”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해운산업은 엄청난 혼란에 직면해 있음
 - 데이비드 벅비씨는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데 기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더하여 소매기업과의 협업으로 가장 효율적이고도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 기업만이 번창할 것이라고 언급함
- 자산기반(asset-based) 해운기업이 효율적이고도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얼리 어답터인 인트라(INTTRA), 지티 넥서스(GT Nexus), 카고스마트(CargoSmart)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공급사슬 전문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임
 - 이 세 기업은 현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화주에게 운항일정(Sailing Schedules), 예약(Booking), 선적지시서(Shipping Instruction), 선하증권(Bill of Lading), 배송추적(Track and Trace)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인트라 마켓플레이스(INTTRA Marketplace)의 이나 쿠프네티소바(Inna Kuznetsova) 회장은 해상 컨테이너 수송활동과 관련한 기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B2B 전자상거래기술은 향후 기업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지티 넥서스의 미셸 커밍스(Michelle Cummings) 부사장은 많은 기업들이 현재 편리한 예약과 선적서류 작성을 가능케 하는 사용하기 쉽고 투명성을 가진 클라우드 기술기반의 플랫폼을 사용 중이라고 밝힘

인트라 마켓플레이스 이나 쿠프네티소바 회장



자료 : www.maritime-executive.com

지티 넥서스 미셸 커밍스 부사장



자료 : www.supplychain247.com



- 기업 간 좋은 관계 구축은 전자상거래 파트너십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임
 - 드류리 컨설팅(Drewry Consulting)은 2년 전에 카고스마트와 전자상거래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파트너십 체결 이전에도 드류리 컨설팅은 주요 컨테이너 해상교역에서 선사 서비스 신뢰성 향상을 위해 카고스마트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었음
 - 드류리 컨설팅은 약 10년 전에 운항 신뢰성 KPI와 컨테이너 운임을 도입한 첫 기업으로, 카고스마트와의 전략적 제휴는 정보가 핵심인 전자상거래시장에서 드류리 컨설팅이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발판을 제공함
 - 드류리 그룹의 필립 다마스(Philip Damas) 공급사슬 고문은 전자상거래기업이 컨테이너선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비경제적일 수도 있으며, 아마존 사례처럼 해상운송을 위한 최선의 전략은 구매력(Buying Power)을 증대시키고 정기선사로부터 선복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함
- 일본화물항공(Nippon Cargo Airlines) 션 맥호터(Shawn McWhorter) 대표는 항공을 이용하여 배송되는 전자상거래 상품의 경우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대부분의 아마존 물량을 UPS와 FedEx가 처리하고 있으나 기상 악화 및 주요 연휴 기간 중 마지막 주문 쇄도 등에 따른 배송 지연으로 아마존은 공급사슬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함
 -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글로벌 화물담당 글린 휴즈(Glyn Hughes) 총책임자는 항공화물은 전체 프로세스 중 육상에서 90%의 시간을 소비하며,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힘
 - 한편, IATA는 항공화물 공급사슬의 온라인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현재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UPU)¹⁾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드류리 그룹 필립 다마스 공급사슬 고문

자료 : www.supplychain247.com

일본화물항공 션 맥호터 대표

자료 : www.aircargonews.com

1) UN 산하 국제기구로, 약 200개 회원국의 우편제도를 관장하고 있음.



● 철도운송도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철도운송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IATA에 따르면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항공운송은 철송에 의해 시장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으며, 일례로 휴렛패커드(Hewlett-Packard, HP)의 경우 최근 중국에서 생산된 컴퓨터를 유럽까지 배송하는데 17일이나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송보다는 철송을 선택함
-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40억 달러로 현재 인도 철도부(Indian Railways)는 도어 투 도어 (Door-to-Door) 운송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라스트 마일 연계성 제공을 위해 도로 및 철도 이동이 모두 가능한 도로 레일러(Road Railers)를 도입할 수도 있음
- 북미의 경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철도 네트워크를 개선 중에 있으며, 전자상거래 철도 네트워크와 관련한 장비 문제 사전 식별, 유지보수 효율성 제고, 안전성 강화를 위해 레일링크(Railinc)²⁾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음
- 미국철도협회(The 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AAR) 에드워드 알 햄버거(Edward R. Hamberger) 최고경영자는 빅데이터를 통해 철송기업은 철도 네트워크에 대해 보다 현명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최고의 화물배송 시스템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국제항공운송협회 글린 휴즈 총책임자



자료 : www.cargopress.tistory.com

댄 굿윌 & 어쏘시에이트의 댄 굿윌 회장



자료 : www.dantranscon.com

● 트럭운송업은 해운, 항공운송, 철송 분야보다 복잡한 상황임

- 댄 굿윌 & 어쏘시에이트(Dan Goodwill & Associates)의 댄 굿윌(Dan Goodwill) 회장에 따르면 2015년 1월 C.H. Robinson이 인터넷 기반의 미국 최대 운송중개업체인 Freightquote.com³⁾을 인수하는 블록버스터급 거래가 이루어짐

2) 북미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철도 IT 및 정보 제공기업.

3) Freightquote.com의 독점적인 전자상거래기술은 화주가 경쟁력 있는 운임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자동화 접수 및 결제 기능을 보유함.



- 댄 굿월 회장은 또 미국의 전자상거래 출하량이 미국 경제에 비해 4배나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에 동의하면서 트럭킹 업체도 라스트 마일 배송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 전자상거래의 증대로 복합운송 역량이 뛰어난 운송기업과 물류기업에 대한 화주의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이며,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복합운송을 통한 다양한 트럭킹 물량 확보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함
-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은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전통적인 소매업과 전자상거래,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음
 - 2015년 아마존은 ‘보물트럭(Treasure Truck)’이라는 신규 서비스를 선보임
 - 보물트럭 서비스는 미국 시애틀을 시범지역으로 인기상품 등을 트럭에 선적하여 판매하는 서비스로 고객은 아마존 앱을 통해 해당상품을 확인하고 구입 및 수령 장소를 결정할 수 있음
- 우리 물류기업들도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에 따른 분야별 운송기업들의 동향을 참고하여 소매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 관련 기술 도입, 빅데이터 활용, 창의적인 서비스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자료 : www.supplychain247.com, 2016.3.11. / www.gscintell.com, 2016.3.28.

김은우 전문연구원
051-797-4772, hisgrace@kmi.re.kr

고재성 연구원
051-797-4776, jsko@kmi.re.kr



물류정책 · 사업동향

COSCO-PSA, 싱가포르 파시르판장 터미널 공동투자 협정 체결

- 2016년 3월 28일 중국과 싱가포르의 GTO인 COSCO Pacific과 PSA는 싱가포르항 파시르판장(Pasir Panjang) 컨테이너터미널 3~4단계의 공동투자 협정을 체결했음
 - 이에 따라 싱가포르항만은 COSCO Pacific의 모회사인 China COSCO Shipping의 동남아시아 환적허브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고,
 - 최신 자동화 및 지능화 항만기술이 접목되는 신규 터미널 개발 및 운영으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PSA의 터미널운영 관련 사업복합성 관리능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 파시르 판장 컨테이너터미널 1단계를 운영 중인 COSCO-PSA Terminal Pte Ltd(CPT)사는 2017년 이후 개장되는 3~4단계 메가 터미널(3선석)로 이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싱가포르항만에서 PSA의 최초 조인트벤처인 CPT는 2003년에 COSCO Pacific사가 49%의 지분 투자를 통해 파시르판장 터미널 1단계 2선석을 공동 운영하고 있음
 - 파시르판장 터미널 3~4단계는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접안이 가능한 1,500만 TEU의 처리능력을 가진 15개 선석(안벽길이 약 6,000m, 안벽수심 18m 이상)으로 개발되는데, 2015년에 일부 선석을 운영 중이며 2017년 말까지 전체가 완공될 예정임
 - 파시르판장 터미널 3~4단계의 총 투자 규모는 26억 달러(35억 싱가포르달러)이고, 이번 투자협정의 정확한 금액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음



자료 : PSA Singapore Terminals (The Straits Times, 2015.6.24).



- PSA International의 CEO(Mr Tan Chong Meng)는 이번 투자협정 체결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무역 및 경제활동의 잠재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PSA와 COSCO Pacific의 동반 협력관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열게 된 이번 투자협정 체결이 중국의 양대 국영선사(China Shipping과 COSCO)의 합병에 연이은 아주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 세계 4위 컨테이너선사로 부상한 China COCSO Shipping사는 터미널사업에 있어서도 세계 5위권의 GTO로 성장, 향후 일대일로 전략 등과 연계하여 시장 지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COSCO와 China Shipping의 지분(equity) 기준 컨테이너터미널 처리실적은 각각 20.2백만 및 8.1백만 TEU로, 양 사 합계는 28.3백만 TEU로 PSA, HPH, APMT, DPW를 이은 5위에 해당함
 - 중국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축 및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향후 컨테이너터미널 사업 부문에 있어서 더욱 더 공격적인 투자가 예상됨

자료 : www.loydslist.com, 2016. 3. 29, Drewry(2015), PSA 홈페이지.

김은수 전문연구원
051-797-4665, kes1213@kmi.re.kr



일부 선주들,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실수라고 인정

- 일부 해운선주들은 초대형 선박의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보임
 - 그리스 아테네 기반 포세이돈 컨테이너 선주인 George Youroukos씨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아시아-유럽 항로에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발주 및 운항되어 왔으나, 초대형 선박의 운항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보임
 -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은 운항하더라도 저유가와 세계 경기 침체를 고려했을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해운선사들은 초대형 선박 발주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임
 - 머스크 라인이 18,000TEU의 Triple E급 선박을 2011년 처음 발주했고, 이후 대부분의 선사들은 머스크와 같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발주했는데, 이는 선사들의 명백한 실수라는 의견을 보임

MSC가 운영 중인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자료 : www.joc.com

- 세계 경제 회복 속도 대비 빠른 초대형 선박 발주 및 시장투입으로 컨테이너선 시장의 공급과잉 우려
 - 컨테이너 용선 선주인 Seaspans의 Peter Shaerf 부회장은 해운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현재 발주된 초대형 선박이 아닌 추가적으로 발주될 초대형 선박들이라고 언급함
 - 2018년까지 세계 경제는 4~5%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고, 이 성장속도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시장 공급 규모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 2015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2.3%만 증가했고, 올해의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률도 작년 수준이거나 그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2017년에는 약 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글로벌 4대 컨테이너 얼라이언스들 간의 치열한 경쟁은 컨테이너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함



-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운항 편의성을 위해 글로벌 컨테이너 시장은 크게 4개(2M: 머스크, MSC, CHYHE: 코스코, 한진해운, 양밍, K라인, O3: CMA-CGM, CSCL, UASC, G6: APL, 하판로이드, OOCL, NYK, MOL,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로 재편됨
- 얼라이언스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발주 경쟁이 2015년부터 본격화 됨
- 컨테이너선 시장의 공급과잉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초대형 선박의 추가 발주는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함

자료 : www.joc.com, 2016.3.21.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5.10.19

이건우 전문연구원
051-797-4784, gunwoo@kmi.re.kr



중국 우루무치경제기술개발구, 뒤스부르크항과 협력 MOU 체결

- 지난 3월 17일 중국 우루무치경제기술개발구(乌鲁木齐经济技术开发区)와 독일 뒤스부르크항그룹이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
 - 양 기관은 자본금 2억 위안의 '신장국제내륙항주식유한책임공사'를 설립하고, 올 상반기내로 우루무치에서 뒤스부르크항까지 주 1회의 Block Train을 개통하기로 함
 - 우루무치경제기술개발구는 현재 신장국제내륙항(新疆国际陆港)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뒤스부르크항그룹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두 항만간의 안정적인 철도 연결 및 배송허브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임
 - 뒤스부르크항그룹 Erich Staake 최고경영자(CEO)에 따르면, 금번 협력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먼저 우루무치와 뒤스부르크 구간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과 유럽간 직행 철도 및 기타 도시와의 복합운송노선 개발을 강화할 방침임

우루무치와 뒤스부르크 연계 철도 노선



자료 : <http://www.kanshangjie.com>

우루무치경제기술개발구 조감도



자료 : <http://www.uetd.gov.cn>

- 신장국제내륙항은 우루무치 서역(西站)의 남측 2.2km² 구역에 조성되며 배후에 약 120km² 규모의 산업단지를 두고 있고 종합보세구, 공항, 국제방직무역센터, 도로·철도복합운송센터, IDC 등이 인접함
 - 신장국제내륙항은 철도, 도로, 항공 등이 연계된 교통운송허브의 강점을 바탕으로 물류인프라 건설, 물류운영 및 SCM 수준 제고 등을 통해 국제물류서비스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2015년 11월, 신장자치구 인민정부는 우루무치 서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운송CIQ센터, 중국~유럽 Block Train 집결센터 설립안을 승인했으며, 향후 신장국제내륙항 건설을 통해 2020년까지 연간 물동량을 2,000만 톤으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함

자료 : www.snet.com.cn, 2016. 3.18

김세원 연구원
051-797-4775, ksw@kmi.re.kr



물류기술 관련 스타트업 투자 · 육성프로그램 확대

- 최근 산업기술분야 투자자들은 물류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Amazon.com의 설립자인 Jeff Bezos, Ebay의 설립자인 Pierre Omidyar, 그리고 Uber의 공동 설립자인 Garrett Camp는 최근 시애틀을 기반으로 설립된 화물운송 예약 사이트인 Convoy에 투자했음
 - 작년에는 Peter Thiel이 세운 PayPal 펀드에서 온라인 화물 예약·추적관련 스타트업 기업인 Flexport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음
 - 또한 DoorDash와 Instacart와 같은 전자상거래 전문기업 및 도시 소비자를 위한 라스트마일 서비스 기업에서도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음
- 물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한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투자가 신규 투자처 확보, 화물 운송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기술 실용화 프로그램의 Jon Bradford씨는 실리콘 벨리를 빗대어 ‘거대 야심을 가진 혁신 지역’이라고 말하며 전문인력과 함께 고객을 만나는 곳으로 평가했음
 - 테네시주 남부 채터누가(Chattanooga) 지역의 Dynamo 프로그램은 천 2백만 달러에 달하는 물류 벤처 펀드에 속해 있는데, 이중 3백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물류와 관련한 자율주행 트랙, 드론, 소프트웨어기술에 지원했음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3개월 동안 다양한 자원과 함께 자신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테스트 받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음
 - 현재 채터누가 지역은 생산기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물류 허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FedEx와 UPS의 주요 운영 시설들도 인접해 있음
- Dynamo 프로그램의 후원자들은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전통적인 산업인 물류분야에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음
 - 프로그램 설립자의 일원인 Ted Alling씨는 “프로그래머는 학교를 떠나서 취직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를 위해 일하고 싶어한다”고 말했음
 - Alling씨에 따르면 투자자는 제2의 ‘인스타 그램’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람을 원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Dynamo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최종 선택된 2-3개의 팀은 저명한 엔젤 투자자이자 VaynerMedia의 대표인 Gary Vaynerchuk씨가 주관하는 쇼케이스에도 초대되어 천 2백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투자도 받게 될 예정임
 - FedEx 또한 지난 주 3천만 달러를 채터누가 지역에 투자하는 한편, Memphis의 전자상거래 기술 특화 기업인 EPICenter가 운영하는 물류 진흥 프로그램에 스폰서로 참여하기도 했음

자료 : www.wsj.com, 2016.3.27.

이홍원 연구원

051-797-4783, hongwon@kmi.re.kr



물류시장동향

인치케이프해운, 멕시코 서비스 강화

- 인치케이프해운(Inchcape Shipping Service, ISS)은 멕시코 베라크루즈에 사무실을 신설하고 멕시코에서의 해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 베라크루즈 사무실은 ISS가 멕시코에 두고 있는 네 번째 사무실로, 멕시코만 일대 영업활동의 80%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함
 - ISS의 발표에 의하면 베라크루즈 항만은 멕시코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컨테이너, 화학제품, 일반 화물 및 자동차까지 다양한 특수터미널을 보유한 다기능 항만임
 - 동 항만은 멕시코 내 가장 많은 자동차 수출입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선박 수리소가 있는 유일한 전용항만이기도 함
- 북미지역의 ISS 부회장인 Tim Cahill씨는 베라크루즈 항만은 멕시코 무역의 출해구가 되는 곳으로서 전세계적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매우 전략적인 곳에 위치함으로써 ISS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함
 - 베라크루즈 항만은 ISS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 높은 생산성, 효율성, 안정성 및 수준 높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함

자료 : <http://www.gscintell.com>, 2015.3.22.

김민경 연구원
051-797-4777, mkkim421@kmi.re.kr

2015년 볼가-돈 운하 화물 운송량 26.6% 감소

- 2015년 볼가-돈 운하(Volga-Don Kanal)간 화물 운송량은 전년 동기대비 26.6% 감소한 800만톤 수준을 기록함
 - 볼가-돈 운하의 2014년 화물 운송량은 1,250만 톤에 달함
 - 운송량의 80%는 볼가 강에서 돈 강 방향 화물임
- 그중 볼가-돈 운하의 석유 및 석유제품 운송량은 2014년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전체 운송량의 69%를 차지함
 - 이외 품목별로는 유황 14%, 금속 5.2%, 곡물 3.4%, 광물소재 2.9%를 차지함
- 볼가-돈 운하의 운항 취약 요인으로는 볼가 강과 돈 강의 낮은 수위로 인한 대형 화물선 통행의 어려움을 들 수 있음

자료 : www.gudok.ru, 2016.3.28.

황윤희 연구원
051-797-4786, hwangyh@kmi.re.kr